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2.10.2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(국가지원) 집행위, 개정된 연구개발혁신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 채택(10.19) 1)
 - 집행위는 연구개발혁신(RDI) 국가지원규정에 대한 개정된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함
 - 이 커뮤니케이션은 회원국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기업에 RDI 활동을 위한 국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
 - ※ RDI 프레임워크는 시장 실패로 인해 공공의 지원 없이는 발생하지 않을 RDI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회원국은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 커뮤니티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
- (EU-미국) 유럽연합-미국, 암·기후·항공 분야의 R&D 협력 강화에 합의 2)
 - 지난 10월 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-미국 공동 협의 그룹 회의 결과 양측은 암, 기후, 항공 분야의 R&D 협력 강화에 합의
 - 이 회의는 2017년 이후 미국과 EU 간에 첫 공식 과학 외교 회의로 양측은 각자의 R&D 계획을 비교하고 프로그램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식별함
- (브르노) EU 의장국 체코, 글로벌 연구 인프라에 관한 브르노 선언 발표(10.18) 3)
 - 선언문은 연구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 및 기타 유형의 지원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
 - 이에는 연구 정책의 다른 측면과의 시너지 활용, 작업의 일관성 및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장려가 포함
 - ※ 한편, 최근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연구 시설이 연구 인프라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, 관련 주제 역시 10월 18일 브르노에서 열린 국제 연구 인프라 회의에서 논의됨
- (양자) 스위스-미국, 양자정보과학기술(QIST) 분야 협력 확대 합의 4)
 - 이번 발표는 전 세계 외교 파트너들과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책의 일부로, 최근 핀란드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,
 -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2개 동맹국*의 양자 전문가들과 만난 바 있음
 - * 미국, 호주,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일본, 네덜란드, 스웨덴, 스위스, 영국
- (기타) 집행위, 오픈액세스 출판 플랫폼인 ‘ORE’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는 [독립 전문가 연구 보고서](#) 발표(10.24)
 - ※ 집행위는 이 연구를 통해 ORE를 비영리 글로벌 출판 플랫폼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탐색

1) 국가지원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2_6233

2) EU-미국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us-eu-statement-rd-collaboration>

3) 브르노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new-call-support-global-network-research-infrastructures>

4) 양자 <https://www.quantum.gov/the-united-states-and-switzerland-sign-joint-statement-to-strengthen-collaboration-on-quantum/>